● 論 壇 ●

電氣工事業의 問題點과 育成方案

Problems and Fostering Measures of Electrical Contractors

權 泰 夏

韓國電氣工事協會 技術部長

어느날 촌에서 올라 온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그 양반은 집에서 내 준 이부자리를 조심 조심 펴고나서 방안의 電燈을 쳐다보며 都會地는 電氣불이 있어 便利하구나 하는 表情을 지었다. 日帝 解放前의 이야기다.

그때만 해도 村에는 호롱불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에도 등불이 꺼져 성냥을 다시 그어 대야만 하는 不便이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일이나 그때 當時는 事實이었으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萬一 오늘날에 農漁村에 電氣가 없어 電燈은 姑捨하고 TV나 冷藏庫를 使用치 못한다면 야단법석이 날 것이다.

이제 電氣가 國民生活과 國家産業에 없어서는 안될 存在가 된지 오래되었다는 證據이다.

우리나라 電力事業은 60年代부터 꾸준한 發展을 거듭하여 現在 發電設備가 1,000萬kW에 이르러 國家基幹産業으로 그 基礎를 다져 왔으며 全國의 100%電化를 눈앞에 두고 있어 第2의 跳躍時代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電氣工事業은 60年代 經濟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推進된 電源開發計劃의 積極的인 施行과 함께 活性化되었으며 63年2月26日에 電氣工事業法이 制定·公布됨으로써 電氣工事業의 特殊性과 工事技術의 專門性에 立脚한 獨自的인 地位를 確保하게 되었고 다음해 64年부터 始作된 農漁村電化事業과 4차례의 電源開發5個年計劃事業에 힘입어 電氣工事業은 持續的으로 成長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工事業体數나 工事實績도 繼續 伸長하여 電力供給事業의 主要 役軍으로서 그 面貌를 다져왔다.

이러한 一聯의 發展과 變遷에 따라 其間 電氣工事業界는 많은 研究努力을 傾注해 왔으나 아직도 여러가지 解決해야 할 課題가 남아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發展과 近代化作業이 더욱 加速化될 것에 対備해서라도 電氣工事業界의 体質改善과 育成策이 時急하다 아니할 수 없다.

電氣工事業法이 電氣工事의 安全하고 適正한 施工을 하게 함으로써 危害를 防止하고 電氣工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國民生活에 密接한 電氣設備의 安全施工과 그 分野의 特殊性을 堪案하여 이를 保護育成해야 한다

〈表－1〉 電氣工事業体數 및 工事實績 推移

(單位：百萬원)

年度	業体數	工事實績額	業体當工事實績
1964	410	1,512.9	3.7
1970	1,006	14,336.2	14.3
1975	1,255	58,669.9	46.7
1978	1,197	165,921.6	138.6
(1種)	(669)	(159,281.7)	(238.1)
(2種)	(528)	(6,639.9)	(12.6)
1981	1,715	438,252.0	255.5
(1種)	(818)	(414,487.0)	(506.7)
(2種)	(897)	(23,765.0)	(26.5)
		年平均39.6%	年平均46.9%

는 뜻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法의 趣旨에 電氣工事業界가 잘 対處하고 있으며 이에 適応할 수 있는 處地에 놓여 있는가가 問題이다.

먼저 電氣工事業의 推移를 分析해 보면 다음 表1과 같이 業体數로는 64年 以來 數次의 免許制度의 変更과 更新等으로 81年度에는 總 1,715個業体(第1種：818個業体, 第2種：897個業体)로 4倍以上 增加하였으며 같은 해 工事實績은 約 4400億원에 達하여 年平均 39% 以上의 成長을 記錄하여 왔다.

또 業体當工事實績도 年平均 46%以上으로 增加해 왔다.

이러한 推移로 볼 때 電氣工事業도 그 나름대로 刮目할만한 成長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最近 5個年間의 電氣·建設·通信의 各業種別 工事實績(韓國銀行調査統計)에 依하면 그 平均增加率에 있어 電氣工事業이 42%로 같은 期間中의 通信工事業의 59%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建設業의 海外工事實績을 換算하면 이보다 훨씬 下廻하는 水準이다.

即 前述한 電氣工事業의 伸長은 우리나라 經濟開發에 힘입은 自然增加에 不過할 뿐 이 業種에 対한 特別한 育成策이나 制度上의 改善으로 나타난 現象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직도 電氣工事業이 他業種보다 勞動集約的인 業種으로써 零細한 企業群에서 脫皮 못하고 있는

〈表－2〉 80年度 韓電工事用 資材調達實績

(單位：百萬원)

機能別	全体[1]		持入[2]		持入比率(%)
	品目	金額	品目	金額	
配電用資材	954	60,850	318	1,565	2.6
変電用資材	2,851	22,222	158	94	0.4
送電用資材	254	7,772	24	30	0.4
地中線用資材	330	5,219	50	136	2.6
信通用資材	2,113	1,883	–	–	–
建設工事用資材	6,641	25,845	2,100	8,700	33.7
發電所運轉資材	517	2,092	43	348	16.6
計	13,660	125,883	2,693	10,872	8.6

(註) 1) 本社購入 事業所購入 業者持入을 合算한 것임.
2) 持入은 本社에서 持入許可한 것만 集計한 것임.
3) 韓電 資材部 在庫統制課에서 集計한 것임.

實情이다.

그 要因의 하나는 大部分의 電氣工事發注處가 工事用 資材를 自体供給하면서 勞賃만을 爲主로 工事를 發注하는데 있다. 그나마 그 工賃은 現實化되지도 않은 政府勞賃單價로 말이다.

特히 韓電의 境遇를 보면 表2와 같이 80年度의 工事用 資材의 業者持入 比率이 全体로는 8.6%이나 建設用資材가 33.7%로 높은 反面, 配電用資材는 2.6%에 지나지 않으며 配電·変電·送電·地中線用資材 即 純電氣工事用資材의 不均持入 比率은 1.9%에 不過하다.

그것도 工事用 雜資材로서 業者에게 不便한 것만을 要求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電工事의 資材持入比率이 低調로 因하여 表3의 發注機關別 工事實績에서 나타난대로 電氣工事受注의 大宗을 이루는 韓電임에도 不拘하고 全体의 15.3%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結果는 電氣工事 專門業体인 境遇, 附加價値의 89.3% (81年度)가 人件費라는 經營分析을 招來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電氣工事業의 育成과 適正施工을 期待하기는 無理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韓電은 巨視的인 眼目에서 資材持入制를 果敢하게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韓電工事中 專門業体가 90% 以上을 占有하고 있는 配電工事의 資材부터 漸次的으로 持入擴大해 나가는 것이 當面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

〈表－3〉發注機關別 工事實績 動向(81年末)　　(單位：件, 百萬원, %)

發注機關別	1 種				2 種				計				1種：2種(金額比率)		
	件 數	構成比	金 額	構成比	件 數	構成比	金 額	構成比	件 數	構成比	金 額	構成比	1 種	2 種	計
政府機關	2,866	7.4	38,215	9.2	1,990	2.9	3,553	15.0	4,856	4.6	41,768	9.5	91.5	8.5	100.0
地方自治團体	1,843	4.8	21,519	5.2	1,034	1.5	1,645	6.9	2,877	2.7	23,164	5.3	92.9	7.1	100.0
公共團体	802	2.1	10,745	2.6	515	0.8	670	2.8	1,317	1.2	11,415	2.6	94.1	5.9	100.0
國營企業体	776	2.0	20,611	5.0	301	0.4	339	1.4	1,077	1.0	20,950	4.8	98.4	1.6	100.0
韓國電力	20,650	53.5	60,676	14.6	17,450	25.8	6,296	26.5	38,100	35.8	66,972	15.3	90.6	9.4	100.0
駐韓外國機關	83	0.2	6,065	1.5	1	0.0	11	0.1	84	0.1	6,076	1.4	99.8	0.2	100.0
民間	10,500	27.2	130,509	31.5	46,445	68.6	11,251	47.3	56,945	53.6	141,760	32.3	92.1	7.9	100.0
其他	968	2.5	13,423	3.2	—	—	—	—	968	0.9	13,423	3.1	100.0	0	100.0
海外	108	0.3	112,724	27.2	—	—	—	—	108	0.1	112,724	25.7	100.0	0	100.0
計	38,596	100.0	414,487	100.0	67,736	100.0	23,765	100.0	106,332	100.0	438,252	100.0	94.6	5.4	100.0

다.

또한 現行 韓電의 地域別 工量單價契約工事現況을 살펴 보면, 81年度에 377個 電氣工事業体(第1種：298個業体, 第2種：79個業体)가 이 工事를 契約하여 年間 58,219件에 工事額은 約 250億원의 實績을 이룩하였다.

이는 全体 電氣工事 業体中 第1種이 約 35%, 第2種이 約 8.6%의 業体가 參加하여 1個業体當 年平均 154件의 工事에 그 金額은 6,629萬원 程度로 件數에 比하여 아주 적은 規模(件當：平均 約43萬원)의 特殊工事임을 알 수 있다.

이 單價契約工事는 韓電이 配電線路를 區域別로 責任保守維持케 함으로써 需用家에 対한 電力供給確保를 効率的으로 施行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본다.

即, 이 契約制度는 韓電의 任務를 各 電氣工事業体에게 分担시키는 性格을 띄기 때문에 工事業体의 立場에서도 그 責任이 相當히 무겁다 할 수 있다.

80年부터 地域單位로 實施하고 있는 이 單價契約工事의 受注에 있어 多數의 工事業者가 熾烈히 競合하여 責任參與 零圍氣는 姑捨하고 심지어는 落札率이 50% 以下로 까지 내려가는 境遇가 發生하고 있다. 또 이것이 每年 年例行事로 進行되고 있다.

果然 이러한 過程으로 工事契約이 이루어졌을 때 本然의 趣旨에 合當하며 實効를 거둘 수 있는지 反省할 必要가 있다.

1次的으로는 工事業体의 知的姿勢도 問題라 하

〈表－4〉電氣工事業体의 兼業事項　　(82. 4. 30 現在)

種別		業体數	兼業体數	兼業内容							
				建設業			海外建設	通信工事	消防設備	其他	免許數計
				一般	特殊	單種					
1 種		817	314	238	47	10	62	46	119	54	576
2 種		897	66	51	—	7	—	3	8	4	73
計		1,714	380	289	47	17	62	49	127	58	649
構成比	Ⅰ	100.0	22.0	16.9	2.7	1.0	3.6	2.9	7.4	3.4	37.9
	Ⅱ		100.0	76.1	12.4	4.0	16.3	12.9	33.4	15.3	170.8

(註) ① 構成比(Ⅰ)는 全体業体, 構成比(Ⅱ)는 兼業体數에 대한 比임.
(資料) 電氣工事協會, 會員名簿

겠으나 根本的으로는 制度의 不合理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再定立하기 爲하여는 그 特殊性을 堪案한 工事業体의 選定이 重要한 바 例를 들면 業体의 專門性에 立脚한 施工能力과 責任履行度의 測定 等으로 信賴性 있는 業体로 하여금 隨意契約으로 委嘱하는 形態로 轉換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바로 責任意識을 鼓吹시키는 方途라 하겠다.

그러기 爲하여는 現行 工量單價契約이라는 名稱부터 바꿔 契約當事者間의 信賴性에 보다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誠實한 業体에 対하여는 長期契約으로 安全性과 活動性을 保障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弊端을 없애는 길이라고 生覺된다.

다음은 韓電과의 問題點을 떠나 우리나라 電氣工事業의 免許制度와 工事受給制度를 綜合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자.

現在 電氣工事業体는 電氣工事業法에서 定한 免許基準에 따라 第1種과 第2種으로 區分되고 있는 外에 電氣工事業免許만을 갖는 專門業体가 있는가 하면 建設·海外建設·通信·消防等 다른法에 依한 業免許까지 갖고 있는 兼業体가 있다.

表4와 **表5**에 나타난 바와 같이 專門業体와 兼業体의 數的比率은 大略 8：2이나 工事實績額으로는 約 3：7로써 兼業体는 大型工事를 受注한 反面에 專門業体는 少額工事를 受注하는 業体라 할 수 있다.

또 한편 免許種別 工事實績을 **表6**에서 볼 것 같으면 第2種은 工事件數로는 第1種보다 훨씬 많은데 比하여 그 工事金額은 5～6%의 占有率로써 小規模工事를 業으로 하는 아주 零細한 企業体의 性格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勿論 第2種免許의 施工範圍가 使用電圧이 6.6 kV 以下인 電氣工事와 이에 따른 補修工事 및 附帶工事로 法的으로 限定하고 있어 不得已한 結果라 할 수 있다.

電氣工事業体를 資本金規模上으로 分類해 보면 81年度統計에서 第1種業体의 境過, 資本金 5千萬～1億원인 業体가 72.6%로 主宗을 이루고 1億～2億원인 業体가 9.2%, 2億원以上인 業体가 18.2%로 오히려 1億～2億원인 業体보다 많은 構成比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論한 專門業体와 兼業体의 數的比率 8：2와 相通한다고 볼 때 兼業体는 2億원以上의 資本金을 保有한 比較的 큰 企業体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結局은 電氣工事業体를 兼業体 第1種專門業体, 第2種專門業体의 세 갈래로 大分된 것이 아니냐 하는 錯覺마저 든다. 아니 이것이 이미 既定事實化 되었는지도 모르며 또 앞으로 더욱 深化될 展望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第1種 免許業体는 누구나 모든 電氣工事에 応札할 수 있는 資格이 法的으로 保障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韓電을 爲始한 各工事發注處에서는 電氣工事의 範疇를 歪曲解釋하여 他種의 施工技術이 包含되어 있다하여 兼業体로 工事受給 資格조차 剝脫하는 例가 許多하여 專門業体는 갈 길을 制限받고 있어 限定免許로 轉落하는 傾向인데 反하여 兼業体는 比較的 小規模인 電配工事는 勿論, 內線工事에 까지 마구 손을 뻗쳐 受注된 工事를 不當하게 下都給하는 事例等, 現制度体制에서는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業을 營爲하는 以上, 그 企業의 規模가 적든 크든 安定된 企業으로 育成할 수 있는 與件造成이 急先務인 課題이다. 特히 特殊業種인 電氣工事業에 対하여는 더욱 切實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解決하기 爲하여는 果敢한 交通整理가 必要하다. 汽車는 鉄道로, 車輛은 車道로, 사람은 人道

〈表－5〉 業種別 電氣工事實績対比 (金額單位：百萬원)

業体別	80 年 度				81 年 度				增加率%	
	件 數	%	金 額	%	件 數	%	金 額	%	件 數	金額
專門業体	74,358	91.6	120,140	42.6	30,981	80.3	127,183	30.7	△58.3	5.9
兼 業 体	6,824	8.4	161,626	57.4	7,615	19.7	287,304	69.3	11.6	77.8
計	81,182	100	281,766	100	38,596	100	414,487	100	△52.5	47.1

〈表－6〉 免許種別工事實績

(單位：件, 百萬원, %)

免許種別	80年 度					81 年 度					金額增加率
	業体數	件 數	構成比	金 額	構成比	業体數	件 數	構成比	金 額	構成比	
1 種	830	65,496	100.0	281,766	94.0	818	38,596	36.3	414,487	94.6	47.1
2 種	907	—	—	17,797	6.0	897	67,736	63.7	23,765	5.4	33.5
計	1,737	65,496	100.0	299,563	100.0	1,715	106,332	100.0	438,252	100.0	46.3

로 秩序整然하게 安心하고 달릴 수 있는 制度的인 裝置없이는 電氣工事業의 健全한 發展과 不實工事의 防止를 期待하기는 힘들 것이다.

近者 電氣工事業의 新規免許 發給狀況을 보면 82年 下半期부터 各市道에서 第2種免許를 新規發給하여 이미 京畿·忠北·全北에서만도 245個業体가 새로 誕生하였고 앞으로도 繼續 增加할 趨勢인 바 이러한 工事業体의 亂立은 工事受注에 있어 競合이 더욱 熾烈化되어 이로 因한 不實工事誘發이 憂慮된다. 이를 防止하기 爲하여는 各業体의 資本規模와 專門性에 立脚한 施工能力別로 工事受給資格을 制限하는 方案도 講求되어야 할 것이다.

故事와 現代經營 ⑨

緣 木 求 魚

緣木求魚는 江에서 잡아야할 고기를 나무위에 올라가서 잡으려고 한다는 뜻이니 되지도 않을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터무니없이 不可能한일을 굳이 하려드는것에 비유해서 쓰는 말이다.

〔出處〕 孟子 梁惠王上篇에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은 猶緣木求魚他니라"

〔解說〕 戰國時代의 孟子는 覇道를 배격하고 仁義에 입각한 王道政治를 주장하고 反省과 自責을 통하여 善으로의 복귀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時代相은 여러나라의 諸侯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武力으로 패권을 잡는데 급급했다.

이때 齊宣王이 孟子에게 春秋時代에 용맹을 떨쳤던 齊桓公과 晋文公의 위업을 들려달라고 간청했다.

孟子는 이미 王의 내심을 눈치채고

"대체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신하의 생명을 위태롭게하고 이웃나라 제후들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만에－그런일을 좋아할리가 있겠읍니까 다만 나에게는 원대한 희망과 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읍니다. 王은 영토를 확장하고 진나라 초나라같은 강대국을 굴복시키고 무력으로 천하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같은 소원을 추구한다는것은 나무위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것과 다름이 없읍니다"

하면서 王道政治論을 전개해서 王을 깨우쳐 주었다.

〔考察〕 요즈음 企業体에서 從業員의 主人意識을 鼓吹하고 있다.

從業員이 主人意識을 갖는다는 것은 회사일을 내일처럼해서 能率向上을 기하자는 뜻일게다.

이것은 企業發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命令이나 强壓的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여기에 相應하는 利益均霑과 福利增進등 從業員의 地位向上을 도모하여 自進參與하는 風土가 조성되어야 한다. 主人意識을 강제적으로 고취하려고 한다면 齊宣王이 武力으로 天下統一을 꿈꾸는 緣木求魚가 될 수 밖에 없다(H). *